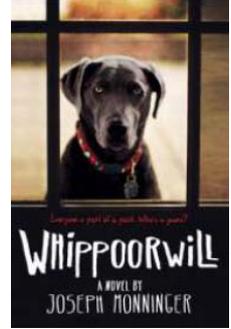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WHIPPOORWILL  
가제 : 쇠독새  
저자 : Joseph Monninger  
출판사: HMH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남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워다 쌓아놓는 옆집 사람들, 잡동사니 틈에서 흐느끼는 까만 개 한 마리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아빠와 둘이 살고 있는 클레어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유난히 추운 2월의 어느 날, 옆집 마당에 새카맣고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등장한 것이다. 침실 창문이 옆집 쪽으로 나 있어서, 밤마다 킁킁대며 우는 개의 구슬픈 소리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추운 밤이 지난 아침, 클레어는 아빠에게 개를 저렇게 밖에 방치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한탄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하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면, 아빠는 그냥 알아서 처신하도록 놔두자고 할 뿐이었다. 하지만 클레어는 옆집 사람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길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클레어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마 잘 알 것이다. 스튜어트라는 성을 가진 옆집 사람들은 모두가 '쇠독새'라고 부르는 부류였으니까.

앞마당이며 뒷마당에 남들이 버린 자동차며 기계들, 부품들, 망가진 가구들을 주워다 잔뜩 쟁여놓고 마치 쓰레기장 같은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쇠독새로 불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클레어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클레어가 방에서 내다보면, 뒷마당에 당장 폐차해야 할 자동차가 다섯 대나 빼곡히 들어차 있고 그 옆엔 색깔이 다 변색된 트랙터 두 대와 한쪽이 허물어진 수영장, 다 찢어진 트램폴린이 보였다. 한 켠엔 닭장이며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우리까지 뒤섞여 있다. 이 잡다한 쓰레기 사이에 까만 개 한 마리가 매어져 있는 것이다. 월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큼직한 개가 밤새 춤고 외로워 끄끙 우는 소리를 들은 클레어는 아침에 먹고 남은 소시지를 가져다가 코 앞에 내밀어보았지만, 월리는 입맛이 없는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눈이 하얗게 싸인 마당에 월리는 힘없이 누워 콧김만 하얗게 뿜어냈다. 클레어는 이 무수한 잡동사니들 사이에 방치된 월리가 더 이상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도록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다. 가엾은 개를 도저히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을 희망과 용기를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

클레어는 월리에게 조금씩 다가가 친구가 되고, 유명한 개 훈련사가 쓴 책까지 열심히 참고하면서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몇 가지 기술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클레어와 월리의 관계를 알게 된 스투어트 집안의 아들, 열여덟 살의 대니까지 훈련에 동참하면서 월리는 조금씩 건강과 쾌활한 본성을 되찾기 시작한다. 월리를 돌보면서 클레어와 대니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둘 사이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싹튼다. 아버지의 무지막지하고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늘 고통을 안고 살던 대니,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까지 대도시로 하나 둘 빠져나가고 늘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던 클레어는 그렇게 월리를 돌보고 훈련하면서 절대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희망의 기운을 느낀다. 하지만 조금씩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지혜를 키우면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던 두 아이에게, 대니가 경찰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 번 절망이 찾아온다. 대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은 겨우 찾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사람과 개의 종을 넘어선 깊은 감정 교류와 함께 기대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두 십대 아이들의 변화 과정을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소설로, 행복이라는 모두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힘겹게 나아가는 인물들의 고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조셉 모닝거(Joseph Monninger)는 청소년 소설과 일반 소설을 비롯해 일반 저술을 여러 편 발표한 작가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리더스 다이제스트>, <글래머>, <보스턴 글로브>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다. 현재 뉴햄프셔 폴리머스 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BLACK DOG  
가제 : 까만 개  
저자 : Simon Butters  
출판사: Wakefield Press  
발행일: 2016년 1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친구 한 명 없는 소년에게 나타난 까만 개 한 마리, 그 때부터 시작된 이상한 변화와 사건들

열다섯 번째 생일날 아침, 사람들에게 ‘몬티’로 불리는 몽고메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다. 침대 바로 옆에 웬 새까만 개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서 뚫어지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기가 흐르는 까만 털에 왠지 슬픔이 가득한 큰 눈을 한 그 개는 대체 어떻게 방에 들어왔는지,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서서 몬티를 쳐다보았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간밤에 갖다 놓았나, 잠시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보통 선물로는 작은 강아지를 주는데, 눈 앞에 있는 개는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몬티가 쳐다봐도 꼬리를 흔들거나 짖지도 않았다. 길에서 돌아다니던 개임에 틀림 없었다. 몬티는 몇 달 전 쥐도 새도 모르게 집안에 들어와 엄마 옷장 속에 새끼를 낳은 길고양이 사건을 떠올리며, 이 개도 밤에 조용히 들어온 모양이라고 결론 내렸다. 씻고, 옷을 입고 얼굴에 커다랗게 솟아난 여드름을 거울에 비춰보며 등교 준비를 하는 내내 까만 개는 몬티만 줄기차게 쳐다보았다. 왠지 성가신 이 이상한 개를 얼른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몬티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개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일은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일어났다. “넌 대체 무슨 개냐?”라고 몬티가 반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부엌까지 따라 내려와 앞에 앉아 있던 그 개가 “까만 개.”라고 대답을 했다. 평소에도 걸핏하면 혼자 멍 때리는 바람에 정신이 좀 이상한 애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온 몬티는, ‘이제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개는 한 마디를 더 던졌다. “넌 미치지 않았어.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 놀라서 정신이 혼미해진 몬티 앞에 잠옷 차림으로 엄마가 부엌에 들어섰지만, 개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혹시 못 본건가?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도 한 마디 하지 않는 무심한 엄마이기에 개를 못 본건지 보고도 말을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개는 엄마가 부엌을 나가자마자 다시 이상한 말을 했다. 학교 가면서 달걀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라는 것이다.

### 학교 최고 인기 여학생과의 만남, 까만 개가 이끄는 낯선 사건들과 그로 인해 위태로워진 사람들

사실 몬티는 그냥 멍 때리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정신이 다른 세상, 다른 차원으로 진입해 온갖 이미지 속에서 떠 다니는 순간이 찾아와 몬티 자신도 고역이었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럴 때마다 눈이 마치 천

장을 노려보든 획 뒤로 돌아가버리는 이상한 몰골이 되어, 학교 친구들은 정신 나간 애라고 놀려 대고 비웃었다. 집에서는 부모님도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친구 한 명 없이 늘 자신만의 세상에서 괴롭게 지내던 몬티에게 느닷없이 말하는 개가 나타난 것이다. 그 때부터 몬티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개가 달걀을 갖고 등교하라고 했던 생일날 아침, 이상한 힘에 이끌려 개의 말대로 달걀을 주머니에 넣은 채 스쿨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몬티에게 엘리자 로버트슨이 말을 건넨다. 같은 나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아가씨처럼 보이는 엘리자는 전교생이 동경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여학생이다. 남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엘리자 이야기를 하고, 여학생들은 엘리자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한 마디라도 더 나누고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런 엘리자가, 학교 왕따들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몬티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다. 그로부터 몇 분 후,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깜짝 놀라 스마트폰으로 놀라운 뉴스를 주고 받는다. 모든 아이들이 관심을 두는 아이, 엘리자가 그 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엘리자가 등교를 하지 않다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뉴스였다.

무슨 일일까?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엘리자는 몬티와 함께 어딘가에 있었다. 정류장에서 만난 몬티와 엘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까만 개는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몬티는 까만 개를 통해 엘리자와 난생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장소로 간다. 그리고 이 날의 일은 몬티와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태롭게 만든다.

#### <저자 소개>

사이먼 버터스(Simon Butters)는 호주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의 각본을 쓴 작가로, 영화 각본가이자 방송 작가로 활동 중이다. <Wicked Science>, <Scooter: Secret Agent>, <H2O Just Add Water>, <Pirate Islands: The Lost Treasure of Fiji>, <The Elephant Princess>, <Lightning Point>, <Mako: Island of Secrets>, <Sam Fox: Extreme Adventures> 등의 각본을 썼다. 첫 소설인 위의 작품 『Black Dog』로 2014년 호주 애들레이드 축제에서 '미발표 작품상' 결승 후보에 올랐다.